

다니엘서 강해 (5)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멸한 다음에 한 왕국이 영원히 서게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왕국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또 하늘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 왕으로 계시는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거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이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동시에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하늘의 왕국이 이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란 것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이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거예요. 지금은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성경만이 Kingdom of God 과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혼동하게 되는거

쥬.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시에 보고 있는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시대를 모르니까 동시에 보고 있는 거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그리스도 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방인 세계 국가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이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데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천국 하면 다 하늘만 생각하쥬.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가는 곳은 하늘 나라쥬. 그런데 천국 그럴때는 이 지상에 이뤄지게되는 하늘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 알아야 되요. 이것 모르니까 혼동들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순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세계 국가를 다 멸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거쥬. 그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거쥬.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말로 해가지고,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쥬 초림때.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면 그의 일은 끝나는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 가에서 회개하라,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유대인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기 왕이 오셨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사람들은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쥬. 그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한 이야기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었쥬.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계 정부를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 정부를 세우신 다음에 주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쥬. 다니엘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2000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당시,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왕국이 이스라엘에 임했을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 주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예수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신 것, 이것을 2000년동안 은혜 시대를 주시고 이제 조만간 주님의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고, 대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그 7년 동안은 무엇 깨닫게 하는거나 하면 말이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왕이다. 왕국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 환란 때는 은혜 복음이 선포 안되고,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요. 이제 천국이 온다 이 땅에. 왕이 오신다. 너희는 회개하라. 다시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 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5장 완전히 끝내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양의 민족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건 무슨 일인가 하면, 대 환란을 통과할 때 유대인들이 먹을게 없고, 감옥에도 갇히고, 병도 들고, 그렇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배웠잖아요. 이사람들이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병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있는 내 형제들은 뭐예요. 그 여기 있는 내 형제는 유대인들이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니까. 주님은 그들이 이런 고난을 미리 겪을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신거죠. 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회개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은 그때 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민족적인것입니다. 민족. 대한민국 백성 민족들이 그렇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그렇지 않으면 못들어가요. 그럼 불뭇에 들어가는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나라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20세기 전만해도 축복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막 유리하고 배 타고 다닐때 어디 정박할 곳을 찾을 때 심지어는 정박해서 좀 먹을 것도 구하고 할 때, 다른나라들은 다 거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다 굶

어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65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사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하고, 1776년인가 그때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미국이 지상낙원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바티칸 편을 들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옛날 부시 대통령 아버지 때부터 중동 평화를 한다고,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 했죠. 그다음에 클린턴도 그렇고, 아들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그때 환란 때에 옛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도와준 그때 미국을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한란은 이건 뭐, 옛날 그것에 비하면 말이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도와준 민족들은 또 축복하시고, 그들의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왕국을 이어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란때도, 개인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민족적으로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까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도해야 되는거예요. 비록 저들이 주님 오실때 휴거되지 못할지라도, 거기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응답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 응답을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어떤분이 한 백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했대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더니 일부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장례식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국이 연기가 된 것이다. 그것이 언제 되느냐.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앞으로 올 천년왕국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으란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에요 이게. 그럼 이 먹고 마실 것 모든 것은 더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그걸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봐야 되겠죠. 내 의가 아니라. 이것만 구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왕국이 임하는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네가 거두라 이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잡수시던 음식이란 얘기에요, 지난 주 설교처럼.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것보다도, 밥먹고서 예배 끝나고 소화도 시킬겸, CD하고 주보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 주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열매 맺어요. 옛날에 어떤 노인이 교회 와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분이 주일 설교한 것 CD카피해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열댓개, 마켓에 가서 그것 뿌렸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매주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요. 썩은 음식을 먹은 것만큼 그것보다 더 먹어야 되요. 그리하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요 우리가. 썩은 음식만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썩은 음식도 먹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영적인 음식을 더 먹으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뭐 나눠주는거 얼마나 쉬워요. 주보에 말씀이 들어있고, 또 말씀만 있는게 아니라 CD가 나가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들을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5절에서 보았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

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예언. 이건 100 프로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정치 권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한 책이 없죠. 점쟁이들도 못 알아맞추죠. 점쟁이들이 가끔 누가 대통령 된다고 뭐 들중 하나니까 50%니까 가끔 알아맞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책은 아무 곳에도 없죠. 코란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출연하게 될 나라 왕국이 이름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8장을 넘어가서, 다니엘 시대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우린 이미 알죠.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나있으니까. **8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순 없고. 또 나중에 공부할거니까.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숫 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랬죠. 그때는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머리는 금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 아니에요. 두 번째 두 팔과 가슴은 뭐라고 그랬죠. 은이라 그랬죠. 두 팔은 그러니까 두 왕국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페르시아다. 메데 나라의 왕은 다리오고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였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미래 나타날 나라 왕국 이름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은 몰라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게 하신거예요. 다니엘은 그 왕국이 뭔지 몰라요. 예언한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21절 [그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뭐죠, 놋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라는거예요. 그리스 나라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의 양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그 그리스가 나뉘어가지고 로마가 되었죠. 그렇죠 네 나라로 나뉘졌잖습니까? 네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 왕국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준 확실한 책이 어디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엘은 이렇게 앞으로 부상할 정치 권력을 이렇게 하나 하나 예언하게 되는거죠. 이게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예언을 하죠. 이 성경말씀을 배워서 예언하는거예요. 다니엘도 배웠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배웠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면 예언할 수 있는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게 예언이지 뭐니까. 이런 멋진 예언을 할수 있어야죠. 아 뭐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예언 말고, 좀 멀리까지 내다보고 말이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사람이 뭘 아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든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스가 출현한 다음일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아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스가 출현한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 그러면 과거의 사건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미래 역사라 그랬죠. 미래 역사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100% 일어날 일이니까 역사다. 왜 과거의 사건이 역사입니까? 100프로 일어났으니까 그게 역사죠. 성경 말씀은 다 미래의 역사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는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하게 되면 예언을 들을 때는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배에는 쓰게 된다고 했어요. 이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예언하게 되면 쓰게 되는거예요. 핍박을 받는거예요.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을 먹는 방법도 우리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방법, 즉 먹고사는 길은 이거 하면 되는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2장에서는 아직 나라 이름이 안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8장 가니까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두 다리. 두 다리가 나오는게 동 로마 서 로마로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죠. 로마라는 이름은 안 나와도. 그리고 열 발가락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결국 UN이나 NATO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던가. EU 연합국이죠. 섞여살죠. 그렇죠. 근데 그걸 EU만 보고 거기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된다고 잘못 아는 것도, EU도 열 발가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죠. 유럽 연합이 철, 강한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있죠 반면에 그리스 네델란드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있잖습니까? 약한 나라들 . 철과 진흙이 섞여있다. 미

국도 마찮가지예요. 유럽사람들 백인들과 흑인들, 동양사람들. 우리 동양사람들 약하잖아요.

머쵸리티 마이노리티. 머쵸리티는 철이요 마이노리티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되고있죠. 미국이 합중국이죠. 유럽도 연합이 됐죠. 중남미도 연합이 되고 있죠. 이제 아시아도 연합이 될거죠. 연합이 된다는게 뭐죠? 서로 합할려고 하는데 안되는거예요. 철과 진흙이 합혀지나요? 안되죠. 인간적으로 연합하려는데 안되는거예요 이게. 결국 이 시대에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열 발가락 끝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죠? 이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휴거 후에 열 나라를, 열 왕국을 세울때가 다 왔다는 것을 알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휴거되고 이제 7년이 지나면 뜨인 돌이, 주님이 재림하셔서가지고 이 세상을 치게되면은 다 없어진다는거예요. 이걸 보고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첫째는 그런 말씀을 못배워서 그렇고 또 배워도 이런 말씀을 못깨달아서 그렇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천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내다본 지금의 유럽 아시아 미국, 그 사람은 어딘지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죠.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모두 그랬지만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니엘서 이것을 봐야만 천년왕국을 볼 수 있는데, 그 랍비들이 옛날 조상들, 바리새인들이 다니엘은 우리 수치를 얘기한 사람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거예요. 참 마귀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다니엘서를 정말 인정한다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놀라겠죠. 이 돌이 누군가 저들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을수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여러분 그 에스겔 38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은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이것을 몰랐지만 곡과 마곡이라는 그 말

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 지금의 러시아나, 러시아 연합국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비슷한 것이 나타난 것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곡과 마곡 그랬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을 몰랐지만, 그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곡과 마곡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결국 연결되는구나. 알려주죠.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끝에는 러시아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보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일본한테도 졌죠. 러일 전쟁 때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죠.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약했어요. 그리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됐잖아요. 연방중에서도 러시아는 별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참 이걸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은혜 은혜만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하라 한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이것은 그들이 이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이 되는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거예요. 깜깜하잖아요 다 어린애들 베이비들이야 다. 그러니까 베이비들만 모여가지고 베이비 시터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아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먹을거 입을거도 주시는데 그걸 안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맨날 젓먹는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맨날 울고 그러잖아요. 달라고요.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또 달라는게 진짜 먹을거 달라고 하면 되는데, 진짜 좋은것은 안 먹고, 나쁜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막 두드려 맞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나쁜거 입에다 막 쳐넣다가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불에다가 손을 넣고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에

요.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느냐. 이
 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때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이 뭘니까 이 선지서들. 요한계시록, 우리
 다니엘서도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이 예언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 땅이 우리가 배웠죠.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유럽권
 세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
 오고, 요한계시록 14장 아마겟돈 거기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죠. 그렇게 할 때 곡은 왕을
 가르키고 마곡을 뭐라고 그랬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배울 때. 매색과 두발. 모스크바 투볼스크. 결국 러시아와 북방 권세들, 앞으로 러시아가 주
 동이 되가지고, 이 무슬림 이슬람과 더불어 터키라던가 이디오피아라던가 이런 나라들과 더
 붙어 이란과 더불어 올 것을 우리가 배웠잖습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
 서 이들이 내려오지만, 주의 날에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할 것을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앞으로 이를 일을 훤히 이제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
 진 것도 알았고, 우리앞에 이뤄질 것은 뭐 이제 열 발가락 시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
 님이 열 발가락을 칠때는 우리가 휴거되고, 이제 이 땅에 대한 끝이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실 때 뜨인 돌이죠. 그렇잖아요. 돌이 뜨여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산 돌이신 예수께로 산 돌로 이어졌으니까. 지금 거듭난 성도들은 다 산 돌이죠. 그
 러니까 진짜 산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 돌이 그냥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땅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이 땅은 돌들로써 태산을 이룬다. 구약성도들 신약성도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쳐버리니까 태산을 이뤄버리고 이땅의 모든 왕국들은 다 부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당장 이 땅은 고생하는
 곳 아닙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 이땅에서 편히 살려고 하지 말
 아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되. 여러분 피난 가는 사람이 말이죠 뭐 편하게
 삽니까. 세끼 먹으면 되는거지. 세끼 먹고 가릴 옷만 있으면 되고 비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저 지붕만 있으면 되는거지. 뭐 더이상 필요합니까? 순례자와 타국인이다. 우린 주님오실때

까지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한다.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라고 한거지, 먹고 살라고 이야기 한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게 살게 되는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게 더해진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알게 되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뭐인지 알아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더라구요. 나도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니까 깨달아진거야. 이게. 왕국이구나 나만 구원하는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옛날 미국이 일본을 쳤잖아요. 일본을 치니까 한국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를 쳐버리는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거구나. 마귀를 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책망하실 때 심판이란 것은, 심판이란 것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확실한 예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은 미래 역사입니다. 이 말씀들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이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거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신 것 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을 하늘에 올려보내서 새 예루살렘에 좋은 집들을 마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 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히 우리교회에 있는 이 WGM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그 유업을 무엇인지 알고, 그 유업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유업을 준비할 때 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